

여야 전문가 “차 인사 스타일 고쳐야”

새누리 연석회의 “보안보다 소통·검증 우선” 민주 “밀봉·불통인사 불행... 시스템 개선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그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새정부 출범 차질 우려와 함께 인사시스템 개선, 박 당선인과 당의 소통강화 필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쏟아졌다.

황우택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으로서 본인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검증)해서 잘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병역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은 서류검증만으로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당선인 측에서 사전검증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제 인사스타일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원은 “이러다가 대통령 취임 전에 내각이 제대로 구성돼 출발할 수 있겠나 걱정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면서 “차에 인사전문회를 도덕성 부분과 정책·능력으로 나누고 개인에 관계되는 사안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전날 자진사퇴를 ‘불통 인사’, ‘밀봉인사’가 불러온 ‘불행한 사태’로 규정,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시스템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수첩에 등재된 자기 사람 리스트에서만 후보를 찾을 게 아니라 널리 인재풀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나홀로 잠잠이 인사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새누리당도 왜박 당선인에게 할 말을 하고 비판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김 후보자의) 옹호는 잘한 결정이며 박 당선인도 용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밀봉인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바로 잡았다면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동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박 당선인이 인수위에 인사검증팀을 만들어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선인의 인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실질적 견제 및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말썽 없는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색한 관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부분과과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靑 “이동흡 거취 인수위·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현재소장 공백 장기화

청와대는 3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며 “청와대에서 알기위할 문제가 아니라 인수위나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1순위로 추천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 후보자를 선택한 측에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인수위·새누리당은 어느 쪽도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송두환 재판관(64)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용준, 인수위원장직 유지할 듯

총리 후보에서 전격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총리 지명자 사퇴를 발표한 지난 29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인수위원장 유임 여부는) 당선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모두 발언에선 김 위원장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서까지 서울 무악동 자택에서 머물렀다. 매일 오전 7시께 서울 모 호텔 수영장에서 하던 수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11시30분께 부인인 서체원 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인수위원장을 유지할지 묻자 김 위원장은 “허허...”웃기만 했다. 이어 차에 올라타 서울 시내 호텔로 가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5년간 지역정책 지휘봉 없이 지휘”

홍철 지역위원장 현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비판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담당했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의 홍철 위원장이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감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지역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조언했다.

또 현행 ‘자문위원회’로 존속할 경우에는 주무 부처를 현행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겨 지역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독자적 활동을 하기 어려워 지난 5년 동안 지역위는 실효성 있는 활동을 못했다 지적을 받아왔다.

홍 위원장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상생포럼 연구발

표회’ 인사말을 통해 “지역정책은 17개 지자체와 10여개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핵심이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지역정책은 지휘자가 지휘봉도 없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꼴”이라고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지역위의 간사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도산업과 같은 신산업에만 골몰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지역위가 지휘봉을 넘겨받아 행정위원회가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예산권도 있는 기획재정부에게 상근 부지휘자의 지휘봉을 맡겨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지역정책의 책임자로서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이라며 “과거 정부와 지나치게 차별화를 시도한 현 정부가 지역정책의 조정기능을 각 부처로 넘기면서 지역위를 사실상 무장 해제시키는 자충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정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참여정부는 악기도 준비안 된 상태에서 지휘자가 전횡하는 바람에 불협화음을 냈다”면서 “그 바람에 MB정부는 지휘자를 유명무실한 명예 지휘자로 만들고, 제1바이올리니스트인 지경부에게 지휘봉을 넘겼지만 그는 자기 연주에만 몰두해 전체 연주는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오는 3월 임기를 마치면 대구카톨릭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U대회, 첨단 IT대회로 치른다

초고속 인프라 구축 스마트기기로 소식 제공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가 첨단 IT대회로 치러진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장 강운태)는 30일 조직위 청사에서 대회운영통합시스템 및 전자통신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SK C&C와 SK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며,

대회운영에 필수적인 선수 및 물자관리, 경기운영, 기록계측, 경기정보제공 등 대회운영통합시스템과 대회통신망, 방송음향시설, 전광판 등 최신 IT기술로 무장한 전자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초고속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경기장 소식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물론 관공·교통·통역·기상정보가 서비스되고, 콜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친근하

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대회운영자, 참가자, 관람자, 보도진 등 모두가 대회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기운영과 최고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기록계측,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융합으로 언제 어디서든 생동감있는 대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최첨단 IT 기술이 빛을 발하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광주시 내년 국비 목표액 3조

광주시는 2014년 국비 3조원을 목표한 신규사업 44건(5834억원)을 발굴했다.

시는 3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강운태 시장 주재로 국비사업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고 계속사업 82건(3조1821억원)을 포함한 내년 총 126건에 3조7655억원의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목표액을 3조원으로 정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 사업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 ▲국립물원구소 광주 설립 ▲광주 재활용 에코플렉스 건립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 등이다.

시는 신규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안

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매월 1~2회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국회의원과 정경간담회 및 당협협의회 개최,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의 2013년도 국비확보액은 2조5181억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13 봄/방/학/시/즌/ 일본여행

오사카 - 무안

KOREAN AIR 전세기 취항



광주점 062)384-9031
222-3700

정기편 + 전세기 편도

2월 24일 ~

큐슈온천 + 오사카 4박5일

헤리(부산-큐슈) + 전세기(오사카-무안)

₩ 849,000

2월 25일 ~

큐슈온천 + 오사카 3박4일

정기항공편(부산-후쿠오카) + 전세기(오사카-무안)

₩ 899,000

2월 26일 ~

큐슈온천 + 오사카 2박3일

정기항공편(부산-오사카) + 전세기(오사카-무안)

₩ 799,000

왕복전세기

3월 1일 ~ 오사카, 나라, 코토 **딱찬 3일** 황금연휴 무안공항 이용 ₩ 1,150,000 ~



■ 여행코리아 062)233-2626 ■ 광성관광 062)228-4111 ■ 월드항공 062)225-2255 ■ 정투어 062)956-3979 ■ 투어뱅크 062)224-0022